

현대중공업, 사우디 집진설비 턴키 수주

현대중공업(주)(대표 : 최길선)은 최근 사우디 담수청으로부터 전기집진설비 7기와 부대설비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전기집진설비는 증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 중의 분진을 제거하는 설비로 수주 금액은 약 2천4백만 달러.

사우디 쇼아이버(Shoaiba)와 슈콰이크(Shuqaiq) 발전소에 설치될 이 설비는 현대중공업이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일괄 수행해 오는 2002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지난 83년 사우디 담수청으로부터 수주한 마카타이프(Makah Taif) 화력발전소 5기를 현대중공업이 성공적으로 완공한 것이 높게 평가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발전소 및 담수설비 등 플랜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에서의 영업력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설비의 발주처인 사우디 담수청으로부터 추가 공사 수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진전기공업, 초정밀 전력량계 국산화

일진전기공업(주)(대표 : 홍순갑)은 지난 '98년 0.2급 이하의 초정밀 전자식 전력량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선도업체다. 일진의 초정밀 전자식 전력량계는 지난 '96년 4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총 20억 원을 투자한 연구개발의 결과로 이뤄졌다.

이 제품의 특징은 기존의 전력량계가 측정정밀도 기준으로 보통급(편차 -2~+2%)인데 비해, 0.2

급 이하의 초정밀 산업용 전자식 전력량계라는 점이며 크기에 있어서도 세계 최소에 가깝다. 사용 온도 범위도 섭씨 영하 40에서 영상 85도로 기존 제품에 비해 사용범위도 훨씬 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전화선 전력선 RF모뎀 등을 내장하고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검침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한전선, 통신망 임대 합작사 추진

회선임대업체인 미국 레벨3사가 한국에 진출한다.

레벨3는 전선업체인 대한전선(대표 : 이청용), 자

회사인 옵토메직(대표 : 김정훈)과 합작, 통신망 임대사업을 전담하는 벤처기업 레벨3(가칭)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3사는 국내 인터넷 및 커뮤니케이션 시장을 겨냥, 광대역서비스 및 네트워크를 공급하는데 협력기로 했다.

이번에 설립될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242억원으로 대한전선·옵토메직과 레벨3사가 각각 51대49

의 비율로 투자하고 대한전선이 경영권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회사는 한국을 일본·홍콩·대만 등 주요 북아시아 시장과 연결하고 아시아 시장을 미국·유럽 등과 연결할 국제 해저케이블 시스템인 「타이거」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 조만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흥전기산업, 저가 로봇전용 인버터형용접기 개발

용접기 전문업체 조흥전기산업(주)(대표 : 최백규)은 최근 저렴한 비용의 로봇전용 인버터용 CO₂ 용접기를 개발해 공장 시설투자비의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용접기는 220V, 380V, 440V 겸용으로 설계되어 어떤 배전 전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외국산 용접기에 비해 최고 30% 정도 가격을 낮췄다.

또한 기존의 로봇전용 용접기가 별도의 제어장치를

필요로 하는 수작업에 의존한 반면 이 용접기는 제어장치를 용접기 내부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작업시의 불편을 해소했다.

특히 호환성이 뛰어나 국내외 어떤 로봇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크 용접로봇의 숫자가 연간 5백여대로 추산되고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2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국전기, 우량기술기업에 선정

발전기 전문 제작용체인 보국전기(주)(대표 : 광종보)가 최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우량기술기업’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보국전기는 최근 ‘엔진구동 유도작용 아크 용접발전기’를 개발,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제품은 회전자에 코일 전선이 없고 고정자에서

직접 유도하는 발전기로 부품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원가는 절감하고 성능은 향상시킨 첨단 제품이다.

보국전기는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5점 가산 ▲특별지원 중소기업 추천대상 우선 지원대상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사업 가점 부여 ▲기술지도사업 우선지원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보국전기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이 제품을 무기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품은 NT마크 획득을 준비중이다.

동양알엔디, 몰드 패키지 배터리 보호회로 세계 두 번째 개발

종합 배터리 솔루션 업체인 동양알엔디(대표 : 서인원)는 2년간의 연구 끝에 몰드 패키지 배터리 보호회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몰드 패키지 배터리 보호회로는 기존 패키지 칩을 인쇄회로기판(PCB)에 표면실장 처리하는 공법 대신 웨이퍼 상태의 베어(bare) 칩을 와이어본딩 및 코팅 처리하는 새로운 공법으로, 소형화·경량화가 요구되는 2.5세대·3세대 이동전화에 적합한 제품

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기능 테스트 부문에서 정전기 및 고주파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켜 원천적인 불량요인을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이다. 이 회사는 완공 예정인 망향 신축 공장에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시제품을 테스트 중이며 양산체제가 완료 되는대로 연간 300억원대의 국내 시장은 물론 700억원대의 수입(일본)제품 보호회로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다.

화의업체 진로산업 흑자전환

케이블 전문업체인 진로산업(대표 : 주상훈)이 2000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 10억원을 실현, 지난 '98년 화의개시 후 2년만에 흑자전환 했다.

이 회사는 화의개시부터 2년에 걸쳐 저수익 사업 부문 철수, 인력감축등 구조조정을 통해 이같은 흑자전환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진로산업은 또 그동안 15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로 최신 고무가류라인(SSCV라인) 도입, 광케이블 연간 60만km 증설, LAN(근거리통신)케이블 생산, 주력설비합리화를 이뤄 경영 정상화 기반을 다지는데 한몫했다.

진로산업은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선박용전선, 광

케이블부문에서 실적이 호조, 수익성 우선의 영업을 펼치면서도 전년대비 17% 성장한 1천5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재무면에서도 차입금 200억원 상당의 출자전환과 125억원의 금융채무 환매로 2000년말 자본총액이 108억원에 달해 그동안의 자본잠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진로산업측은 올해 현재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3년치 선박용전선 물량을 확보한데다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따른 광케이블 및 LAN케이블 수요 증가도 예상돼 지난해에 이어 전선부문에서 30% 성장된 2천1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연구원, 올해 사업계획 발표

한국전기연구원(원장 : 권영한)은 올해 사업을 전기분야 기술혁신을 선도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연구 및 시험 평가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며,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통해 산업체에 되돌려 주는 내실 있는 연구소로 발전한다는 기본 방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를 위해 경영목표와 관련 있는 전문분야를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첨단핵심기술 및 공공복지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또 핵심기술을 개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공통애로기술 및 수요중심의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전기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기기 성능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규격 시험설비를 확보,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함과 동시에 기술하부구조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는 것도 올 한해의 사업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을 NEW

(New, Environmentfriendly, Wise) 전력시스템 핵심기반기술 개발사업, 산업전기 및 응용기술 개발사업, 차세대 전기에너지응용 및 소재기반기술 개발사업, 전기시험 평가사업 및 기술지원사업 등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 500MVA 단락시험설비 운영사업과 전자기 환경장에 실증평가 및 기술지원사업, 국가 기간시설물 전식대책 지원사업 등 일반사업과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 한전·기업체 수탁연구사업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NEW 전력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21세기 국가 전력망을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구성하고 전력을 효율적·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시스템 운용핵심기술과 통합시뮬레이터 및 제어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21세기 첨단기술분야인 환경기술 개발을 지원, 산업전기 및 산업계의 응용기술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현대중공업(주)(대표 : 최길선)이 국제공인품질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자사 산업기술연구소가 ILA(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

peration/세계 시험소인정기구)와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국시험·교정기관인정기구)로부터 국제기준의 시험 기관 능력을 인정하는 「ISO/IEC 17025」와 「ISO/IEC

9001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이제 재료시험에 있어서 역학분야인 인장강도¹⁾, 항복(降伏)강도²⁾, 연신률(延伸率)³⁾, 단면수축률⁴⁾, 충격시험⁵⁾, 경도(硬度)시험⁶⁾, 굽힘시험⁷⁾ 뿐 아니라 화학분야인 건식법⁸⁾을 이용한 저합금강 및 스텐레스강의 화학성분 검사 등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ISO/IEC 17025는 국가간 상호 인정체계를 갖추고 있어 품질 문서 체계 및 품질관리 기술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

험 결과 및 품질을 고객들에게 보증할 수 있게 된 만큼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신뢰도 향상으로 영업활동이나 해외공사 입찰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으며, 협력회사의 제품 정도(精度)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도 함께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국제시험기관 인정 뿐 아니라 국제교정기관으로도 인정받기 위해 현재 이를 추진 중이며 오는 7월경 이를 획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어 및 용어 설명】

- ISO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합성과 자격요건을 명시한 국제규격문서
- 1) 인장강도 : 최대 하중값을 시험편의 최초의 단면적으로 나눈 응력
 - 2) 항복강도 : 시험편이 끊어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고점
 - 3) 연 신 률 : 잡아당겨 늘어났던 부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
 - 4) 단면수축률 : 시험편의 파단된 부분이 오그라드는 정도
 - 5) 충격시험 : 외부 충격에 어느정도 견딜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험
 - 6) 경도시험 : 여물기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
 - 7) 굽힘시험 : 재료를 구부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균열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
 - 8) 건 식 법 : 고체상태의 철금속 및 비철금속의 각 성분을 발광분광분석기를 이용해 질량과 성질 등을 분석

LG산전, 수·화력 발전소용 배전반 개발

LG산전(주)(대표: 김정만)은 최근 수·화력 발전소에서 전력 사고시 전력 계통 및 부하기기를 보호하는 제품인 저압 배전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저압 배전반은 한국전기연구소에서

실시한 성능시험에 합격, 국제전기규격인 IEC60947-2 규격을 획득함으로써 제품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독자 개발한 기중 차단기를 채택한 저압 배

전반은 기존 제품과 달리 트립릴레이가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어 정격전류 설정이 정확하고 부하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정격전류 조정단계가 세분화 돼 있다.

또한, 각종 잠금 장치, 인터록(Interlock) 장치 등 다양한 부속장치가 있어 고객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극대화했다.

LG전선, 인도의 통신 인프라 구축 참여

LG전선(주)(대표 : 권문구)이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인도의 국책사업인 통신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다.

이 회사는 전력청(PGCIL)이 실시한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 동부지역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입찰에서 일본 후루카와, 독일 씨멘스, 이태리 피렐리 등의 세계적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턴티 프로젝트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LG전선은 이번 수주로 인도 동부의 오리사주와 서벵갈주에서 총연장 900km 구간에 이르는 OPGW(광섬유복합공지선) 선로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LG측은 이번 공사에 최첨단 시공기술인 활선공법을 도입, 첩탑에 설치된 기존 선로의 전력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첩탑 꼭대기에 OPGW선로를

연결하게 된다.

LG전선 관계자는 이달 중순부터 시공에 들어가 내년 말에 완공될 이같은 프로젝트 수행으로 올해 인도에서 실시될 2~3개 턴키 입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국내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기간산업자들의 설비투자 위축에 따라 작년 초부터 해외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중남미 시장을 집중 공략, 작년 12월 중미의 벨리즈 공화국에서도 1천만달러 규모의 OPGW 시스템을 턴키로 수주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LG전선은 올해 OPGW 시스템 구축 및 220kV 급 초고압 지중선로공사에서 작년 수주액의 2배에 육박하는 총 8천만달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LG산전, 초고압기기 베트남 수출

LG산전(주)(대표 : 김정만)이 베트남에 500만 달러 상당의 초고압기기와 배전반을 공급한다.

LG산전은 최근 베트남 중부 전력청(COOMB : Central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이 발주한 '빈닌변전소 외 6개 변전소 기자재 프로젝트'를 수주, 초고압기기와 배전반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LG산전은 프랑스 알스톰社, 스웨덴 ABB社 등

세계 우수 중전기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설비는 올 7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LG산전은 베트남에 생산·판매 법인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약 1천1백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려 프랑스 알스톰社(시장점유율 17%)에 이어 시장점유율(14.5%) 2위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전력설비 시장은 연간 7천만달러 규

모다.

LG산전은 올해 베트남 전력시장에서 16%의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신제품 설명회 및 고객 초청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LG산전은 지난해 동남아 전력설비 시장에서 약 2천5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3천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서진정밀, '국내 금형 · 수출산업발전 주역'

지난 20년간 전기·전자·정보통신기기·반도체·가전제품 등의 각종 금형과 사출성형을 제작, 국내 금형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주)서진정밀(대표: 장재산)은 2월 17일 경기도 의정부에 대지 1500평, 건평 1400평 규모의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춘 새 공장을 준공, 제2도약을 위해 힘찬 나래를 폈다.

이 공장은 최첨단 금형설비인 CAN/CAM SYSTEM 과 전 생산공정에 CNC공작기계를 설치, 수요자가 원하는 모양의 금형제품과 사출성형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서진정밀은 올해부터 협소한 국내 시장보다 드넓은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해외영업에 전담하는 '해외사업부'를 신설, 해외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특히 이 회사는 기존의 수출시장과 일본시장을 공략, 점차 수출물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세계 최대 중전기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과 금형기술력이 낙후한 멕시코 등 중남미지

역으로 수출을 점차 확대를 시켜나갈 방침이다.

서진정밀은 이와 관련 올해 매출액 160억원(목표액) 가운데 60% 이상을 해외수출로 달성할 계획이며, 각종 해외전시회 참가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열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재산 사장은 "21세기 국제정보화시대와 무환경쟁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초정밀금형제품생산에 나서는 한편 품질향상·원가절감·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고품질·고신뢰성의 금형과 사출성형제품 생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지난 20여년간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금형제품을 생산해 우리나라 금형산업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사장은 "회사의 생명은 '고객과의 신용'"이라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고객우선주의와 끊임없는 연구·노력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진정밀은 최근 비행기·선박·주유소·대형유조차 등 각종 유류비축창고 내부에 있는

소량의 수분을 감지할 수 있는 '본질안전방폭형 수분탐지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 관련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품은 각종 유류탱크나 선박기름탱크 등에 있는 소량의 침전물이나 수분을 신속·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장사장은 "지난 '99년 예천에서 맹물전투기가 추락한 원인도 원료탱크내부에 물이 침전돼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자사가 개발한 수분탐지기는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이라고 말했다.

계양전기, 세계 초일류 공기구 전문 기업

계양전기(주)(대표: 이상익)는 20여년간 전동공구를 기반으로 DC모터와 엔진을 생산, 판매하는 전문기업이다.

계양전기는 올해를 '세계 초일류 공기구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해로 삼고 국내시장에서 전동공구 분야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해외시장에서 선진업체와 적극 시장 점유 경쟁을 벌인다는 공격 경영을 표방했다.

계양전기는 올 매출액을 지난해에 비해 20% 늘어난 1천4백44억원으로 순익은 81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중장기 전략목표로는 3년 이내에 매출액 2천500억원, 순이익 200억원을 달성하고 매년 수출을 2배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메타보등 선진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유럽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동남아 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중국 현지 공장을 준공, 전동공구 일부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계양전기는 지난해 다소 소홀히 했던 신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해 올해안에 13개종의 신제품을 선보

일 계획이다.

최근에는 월드 베스트 제품의 일환으로 건축설비 관련 콘크리트 천공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형 햄머드릴을 개발 전격 양산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개발기간만 3년 이상이 걸렸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천공속도와 내구수명을 높여 샘플테스트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드릴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체인지 레버 기능도 겸비한 첨단 제품이다.

계양전기는 그동안 상품 경쟁력 부족으로 중 소형 햄머드릴 분야에서 수입품에 밀려 안방을 내주었으나 이 제품을 발판으로 내수시장 점유율을 4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계양전기는 이 제품 외에도 전품목에서 앞으로 해외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 원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글로벌 아웃소싱도 단행할 예정이다.

계양전기는 또 물류와 고객만족에도 힘을 쏟아 제품 생산에서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보해

‘소비자 중심의 유통 체계 확립’ 계획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계양전기가 올해부터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DC모터 사업 부문.

계양전기는 공구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으로 DC모터 사업에 진출, 자동차용 각종 DC모터 엔진 및 브러시 커터 등 엔진 공구도 생산, 공급해 전동공구와 더불어 세계시장에서 ‘계양 브랜드’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계양전기는 최근 신홍기공과 삼성르노자동차에 모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납품되는 모터는 파워 윈도우 모터로 2001년 1월부터 공급에 들어 갔으며 SM-5에 장

착하게 된다. 올해 납품예정 수량은 약 50십만대로 26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계양전기의 모터는 그동안 미 GM사에 장기적으로 공급하여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시장에서도 기아 옵티마, 현대 EF 소나타 차종에 적용되는 등 국내시장에서 성능을 인정 받았다.

이상익 계양전기 사장은 “계양전기는 투명경영과 21세기 지식 창조형 기업 경영으로 세계 전동공구 시장을 리드 하겠으며, DC모터와 전동공구를 축으로 하는 전문기업으로 뻗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케이디파워, iKEN서비스 사업화 박차

(주)케이디파워(대표 : 박기주)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무인감시로 전기사고를 예방토록 하는 “Web기반 실시간 전력 실시간 전력관리 통합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전력신기술 제8호(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78호)로 지정받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용가에 설치하여 시범 서비스한 결과 안전관리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기존의 대행사업체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

고 지난해 말부터는 각급 관공서 100여 곳에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간업체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케이디파워는 공장 및 건물의 전기설비에 대한 인터넷 전기 안전관리시스템(iKEN서비스 www.iken.co.kr)을 채용하여 전기재해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감을 통한 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을 대상으로 영업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 iKEN 서비스란?

- 수용가의 전력상황을 디지털과 인터넷통신기술로 실시간 원격·무인감시함으로써 전기재해의 사전예방과 피크제어, 역률제어 및 최적운전 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임.

☆ iKEN 서비스의 기술은?

- 디지털+인터넷+네트워킹의 복합기술로서 산업자원부 전력신기술8호 및 과학기술부 KT 인증 등 국내·외 특허 50여개가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 등 전력분야 세계 최고의 원천 복합기술임.

☆ iKEN 서비스의 구성도는?

- 전력감시 대상을 유선 및 무선의 인터넷망을 이용, 본사의 전력망 관리센터로 연결하여 DB축적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고객의 설비를 최적화 운전 지원이 가능함.

☆ iKEN 서비스의 장점은?

-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자기진단 기능으로 전기재해로부터 적극적 예방
- 전력에너지의 합리적 운용자료 제공(DB) 및 그래프 화면
- 지능형 프로그램 탑재로 이상 검색 및 휴대전화 자동통보
- 전기요금 최대 20% 절약(피크+역률+최적화) - 선택 -
- 서비스 완전 차별화 구현으로 방문 점검과의 경쟁 우위

